

저소득층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 탐색 :
아동의 대처 전략, 부모 양육 유형,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Protective Factors of School-Aged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from Low Income Famili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한 준 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 경 자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Jun Ah Ha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Kyung Ja Park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from low-income divorced families. Specifically, protective factors for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were investigated with children's coping strategies, perceived social support,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parental stres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6 children of 4 to 6 grade and their custodial parents(38 fathers, 88 mothers) from divorced families.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were not different neither by children's sex nor custodial parent's sex. When children used more positive and less negative coping strategies, and when parents experienced less childrearing stress, children perceived themselves to be more competent. Similarly, when children used more positive and less negative coping strategies, received more social support, they perceived themselves to be more adequate. Children whose parents had high levels of childrearing stress showed more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Furthermore, children who perceived less supports from peers showed more behavior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Jun Ah Han,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544 Fax: +82-2-363-3544 E-mail: junahan@naver.com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주제어(Key Words) : 이혼 가족(divorced families), 자아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 문제 행동(behavior problems),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 양육 유형(parenting styles), 부모의 스트레스(parent's stres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I. 서론

통계청(2008)의 '2007년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이혼 건수는 124,600건으로 하루 평균 341쌍의 부부가 이혼하였고, 이혼한 부부 중 58.6%가 미성년 자녀를 두어, 약 12만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은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문제이지만, 이혼 당사자인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이혼하면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쪽 부모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동은 불안, 우울, 상실감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생활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Amato, 1999; Cherlin & Chase-Lansdale, 1998; Hetherington & Kelly, 2002).

Barber와 Demo(2006)는 그동안 누적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고찰한 후,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그 이전 시기의 연구들에서 보고된 것만큼 크지 않지만, 이혼 가족의 아동은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여전히 적응 문제와 성취에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은 아동에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혼 가족의 아동이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mato, 1993, 2000; Hetherington & Kelly, 2002; Simons, Kuei-Hsiu, Conger, & Lorenz, 1999). 즉 이혼 가족의 아동이 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으며,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 혹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혼 가족의 아동은 문제가 있는 친구나 또래집단에 더 많이 의존하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대처 기술을 사용하였는데(Leon, 2003),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소홀해지고 양육의 질이 낮아진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주소희, 2004; Amato, 1993, 2000; Hetherington & Kelly, 2002). 또한 이혼 가족 아동은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자아지각과 자존감이 더 낮았다(권영미, 1999; 이훈구, 2004; Amato & Keith, 1991).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는 아동의 성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적응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문제 행동의 증가와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Block, Block, & Gjerde, 1986; Kelly, 2000; Morrison & Cherlin, 199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가 외국의 경우 주로 어머니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Allen, 1993). 즉 단순히 여아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한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남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대한 성차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성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동성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Camara & Resnick, 1987; Peterson & Zill, 1986; Santrock & Warshak, 1979),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적으므로(Emery, 1999),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아동이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적응에 영향을 준다. 이혼 가족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Sandler, Tein과 West(199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은 우울, 불안,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여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인지적 대처를 하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적응 문제를 덜 보였다(Armistead, et al., 1990; Sandler, Kim-Bae, & Mackinnon, 2000).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신재선, 정문자, 2002), 이혼 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는 함께 사는 부모의 성, 양육 행동, 스트레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부모의 이혼 후 함께 사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이혼 후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거나 반대로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eterson & Zill, 1986; Walsh & Stolberg, 1988; Wolchik, Wilcox, Tein, & Sandler,

2000). 이혼한 부모는 이혼 전·후의 심각한 부부 갈등, 이혼,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의 해결 과정, 달라진 삶의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을 장기적으로 연구한 Kelly(2000)는 이혼 후 어머니는 자녀에게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자녀를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비효과적인 양육 방식이 자녀의 공격성과 문제 행동을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혼 가족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적응을 도와준다는 정현숙(1993)의 연구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아동이 지지적인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모의 이혼이라는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혼 가족의 부모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던 경제적 책임, 자녀 양육, 가사일 등을 이혼 후에는 혼자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etherington, 1989).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보호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아동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을 비롯하여 또래나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구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았고(Hirsch & Reischl, 1985), 교사의 관심과 인정,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이혼 가족 아동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Cowen, Wyman, Work, & Parker, 1990). 그러나 국내에서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거나(정현숙, 서동인, 1997),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초점을 둔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이는 이혼 가족 아동이 부모와 가족을 비롯하여 또래나 교사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까지 행해진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혼 가족의 자녀가 특정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자체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혼 가족 아동이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사회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가족구조, 역할, 관계상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위협 요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Hetherington(1999)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성이나 지속 기간은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적응은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긍정적인 시각에서 아동의 적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Werner & Smith, 1992). 반면 적응의 반대 개념인 부적응을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적응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아동이 문제 행동을 적게 보이면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응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행동적 문제를 적게 보이는 아동은 잘 적응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혼 연구는 이혼이라는 사건을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적응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아동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요인이나 적응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학령기 아동의 적응의 지표로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을 선정하여, 아동의 성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에 따라 아동의 적응, 구체적으로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에 있어 보호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부모의 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이혼 가족 아동의 복지 및 부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경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가족 아동의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은 아동의 성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이혼 가족 아동의 자아지각에 있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부모 양육 행동, 부모 스트레스,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이혼 가족 아동의 문제 행동에 있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부모 양육 행동, 부모 스트레스,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 ~ 6학년 아동 중 부모가 이혼한 아동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학령기 후기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3개의 사회복지기관과 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혼 가족의 아동을 편의 표집 하였으며, 연구자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도 병행하였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부모의 거주지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을 보면 남아 57명(45.2%), 여아 69명(54.8%)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연구 대상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 126명도 자료 수집에 포함되었는데,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아버지가 38명(30.2%), 어머니가 88명(69.8%)으로 어머니가 더 많았다. 양육 부모의 성을 아동의 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16명(28%),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41명(72%)이었고, 여아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22명(32%),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 47명(68%)이었다. 따라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지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1〉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 분포

	남아	여아	전체
아버지	16	22	38
어머니	41	47	88
소계	57	69	126

연구 대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2.6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1세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50.0%)와 어머니(54.5%)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기술·기능직(18.4%), 생산·단순직(18.4%), 무직(18.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15.8%)이 많았다. 어머니는 생산·단순직(36.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18.2%)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기타 직종(18.2%)이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6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 ~ 200

만원대(23.0%)였다. 이러한 소득 상황은 2007년 1/4 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369만원(통계청, 200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2〉 연구 대상 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	범주	아버지	어머니	전체
		(n = 38)	(n = 88)	(N = 126)
		빈도(%)	빈도(%)	빈도(%)
연령	30대	5(13.2)	41(46.6)	46(36.5)
	40대	32(84.2)	43(48.9)	75(59.5)
	50대	1(2.6)	4(4.5)	5(4.0)
학력	초졸	6(15.8)	5(5.7)	11(8.7)
	중졸	3(7.9)	19(21.6)	22(17.5)
	고졸	19(50.0)	48(54.5)	67(53.2)
	전문대졸	2(5.3)	8(9.1)	10(7.9)
	대졸	8(21.1)	8(9.1)	16(12.7)
직업	사무직	4(10.5)	3(3.4)	7(5.6)
	기술·기능직	7(18.4)	6(6.8)	13(10.3)
	자영업	3(7.9)	1(1.1)	4(3.2)
	판매·서비스직	6(15.8)	16(18.2)	22(17.5)
	생산·단순직	7(18.4)	32(36.4)	39(31.0)
	무직·전업주부	7(18.4)	14(15.9)	21(16.7)
가계 월수입	기타	4(10.5)	16(18.2)	20(15.9)
	100만 원 이하	21(55.3)	67(76.1)	88(69.9)
	100-200만원	13(34.2)	16(18.2)	29(23.0)
	200-300만원	4(10.5)	5(5.6)	9(7.1)

2. 측정 도구

1) 자아지각

아동의 자아 지각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에 기초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수정한 「자아지각 척도」(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능력'과 '자아적절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은 12 문항, '자아적절성'은 24 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지각 척도」는 아동이 각 문항에서 자신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4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1점)로 평정하는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90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능력'이 .83, '자아적절성'이 .86이었다.

2) 문제 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익과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척도와 문제 행동 중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행동 중후군 척도 중 내재화 문제 행동 점수, 외현화 문

제 행동 점수, 그리고 문제 행동 총점을 사용하였다.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총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부모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0점)'에서 '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내재화 문제 행동'이 .92, '외현화 문제 행동'이 .88, '문제 행동 총점'이 .96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원점수들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기준(오경자 외, 1997)에 따라 표준화된 T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 전략

아동이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긍정적 대처 전략' (7문항)과 '부정적 대처 전략' (7문항)의 2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¹⁾. '긍정적 대처 전략'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대체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대처 전략'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긍정적 대처 전략'이 .73, '부정적 대처 전략'이 .68이었다.

4) 부모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연구자가 예비 조사를 통해 제작한 「부모 양육 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 (9문항)과 '통제' (6문항)의 2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온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 아동에 대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대한 격려 등과 같은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에 대해 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많다고 아동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온정'이 .85, '통제'가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온정' 점수는 부정 편포, '통제' 점수는 정적 편포 되었으므로 부모 양육 행동 유형은 '온정' 차원과 '통제' 차원의 점수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온정'의 중앙치는 25점, '통제'는 13점

이었다. 중앙치를 기준으로 온정 점수와 통제 점수가 모두 중앙치 보다 높은 집단은 '권위 있는 양육 유형', 온정 점수는 높고 통제 점수는 낮은 집단은 '허용적 양육 유형', 온정 점수는 낮고 통제 점수는 높은 집단은 '독재적 양육 유형', 온정 점수와 통제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은 '방임적 양육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5) 부모 스트레스

부모가 지각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척도를 중심으로 김오남(1998)이 수정한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5개 하위 영역 중 '자녀 양육' (6문항), '경제적 문제' (5문항), '일과 가족의 갈등' (6문항)의 3개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다. 부모는 각 문항의 스트레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1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2였으며, 각 하위 차원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자녀 양육이 .70, 경제적 문제가 .77, 일과 가족 갈등이 .68이었다.

6)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김연희(199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SSAS척도는 '친구 지지' (8문항), '가족 지지' (8문항), '교사 지지' (8문항)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각 하위 범주에 대해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친구 지지'가 .90, '가족 지지'가 .92, '교사 지지'가 .84이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아동과 부모님이 측정 도구들을 잘 이해하는지의 여부와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 1월에 초등학교 4학년 아동 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

1)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척도」, 「부모 양육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은 한준아(2008)에 제시되어 있다.

아지가,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순서로 질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25 ~ 40분이었다. 부모에게는 가정환경 질문지와 부모의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 행동 순서로 질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30 ~ 45분이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소재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편의 표집하여, 전화와 방문을 통해 연구의 안내 및 협조를 구하였다. 본 연구자가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에게 직접 아동용 질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배부하여 응답한 후 봉투에 봉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능동이 표집을 통한 대상의 일부는 연구자가 만나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일부는 전화로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질문지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24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40부가 회수되어 58.3%의 회수율을 보였다. 부모용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여, 12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이 아동과 양육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전략,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 스트레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점수는 '긍정적 대처 전략'은 2.1, '부정적 대처 전략'은 2.1로 나타났고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2점인 '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 '자주 그렇다'

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아동들은 긍정적 대처 전략과 부정적 대처 전략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평정한 부모 양육 행동의 하위 요인 중 '온정'의 문항 평균 점수는 2.6, '통제'는 2.2였고,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2점인 '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 '자주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이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보통 수준 정도로 지각하고 있고, 통제보다는 온정을 조금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문항 평균으로 남아 부모는 2.9, 여아 부모는 2.8,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아 부모가 3.8, 여아 부모가 3.7이었고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서 중 2점인 '비교적 그렇지 않다'와 3점인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과 가족 갈등'에 대한 지각은 남아 부모의 문항 평균 점수는 3.3, 여아 부모는 3.0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와 여아 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33, p < .05$). 즉 일과 가족 갈등에 대해서 남아 부모가 여아 부모 보다 조금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아동이 평정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 중 '친구 지지'의 문항 평균 점수는 남아 3.1, 여아 3.5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t = -2.25, p < .05$). '가족 지지'의 경우 남아의 문항 평균 점수는 3.4, 여아의 문항 평균 점수는 3.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 지지'의 문항 평균 점수는 남아 3.1, 여아 3.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79, p < .01$).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중 3점인 '보통이다'와 4점인 '그런 편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 검증 결과

변인		남아 (n = 57)	여아 (n = 69)	전체 (N = 126)	t
스트레스 대처 전략	긍정적	2.1(0.7)	2.07(0.6)	2.1(0.6)	1.28
	부정적	2.2(0.7)	2.04(0.6)	2.1(0.6)	1.42
양육 행동	온정	2.5(0.7)	2.7(0.7)	2.6(0.7)	-1.42
	통제	2.3(0.6)	2.2(0.7)	2.2(0.7)	.66
부모 스트레스	자녀양육	2.9(0.7)	2.8(0.8)	2.9(0.7)	.35
	경제적	3.8(0.8)	3.7(0.8)	3.8(0.8)	.70
	일과가족	3.3(0.6)	3.0(0.7)	3.1(0.7)	2.33*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3.1(1.0)	3.5(0.9)	3.2(0.9)	-2.25*
	가족 지지	3.4(0.9)	3.7(1.0)	3.6(1.0)	-1.79
	교사 지지	3.1(0.8)	3.5(0.8)	3.3(0.9)	-2.79**

* $p < .05$. ** $p < .01$. *** $p < .001$.

이다'에 해당되어 이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고, 남아를 양육하는 부모보다 여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아동과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

아동의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이 아동과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자아지각 중 '능력'의 점수는 아버지가 양육하는 남아 집단의 문항 평균 점수는 2.7점, 어머니가 양육하는 남아 집단의 문항 평균 점수는 2.6, 아버지가 양육하는 여아 집단과 어머니가 양육하는 여아의 문항 평균 점수는 각각 2.5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지각 중 '자아적절성'은 아버지가 양육하는 남아 집단, 아버지가 양육하는 여아 집단, 어머니가 양육하는 여아 집단의 문항 평균 점수는 각각 2.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양육하는 남아 집단의 문항 평균 점수는 2.7로 나타났다. 이는 4점 척도에서 2점인 '부정적 지각에서 조금 비슷하다'와 3점인 '긍정적 지각에서 조금 비슷하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 가족 아동이 중간 정도로 자신의 능력과 자아적절함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능력'과 '자아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이원변량 분석 결과, 아동의 성과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능력과 자아적절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남아와 여아, 그리고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아동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경우, '문제 행동 총점'은 아버지가 함께 사는 남아($M = 51.1$)가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아($M = 46.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내재화 문제 행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남아($M = 52.6$)가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아($M = 46.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 행동'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여아($M = 50.0$)가 가장 높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아($M = 46.2$)가 가장 낮았다. '문제 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성과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은 남아와 여아, 그리고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3. 자아지각을 설명하는 변인

아동의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능력'과 '자아적절성'에 대한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은 아동의 성, 양육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표 4 참고), 부모의 이혼 후 경과 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중다회귀분석에서 아동의 성, 양육 부모의 성, 이혼 경과 기간은 통제하지 않았다. 또한 회귀과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아지각의 하위 요인들과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들이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었고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자아지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지각의 하위 영역인 '능력'과 '자아적절성'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대해 27%를 설명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긍정적 대처 전략($\beta = .32$), 부정적 대처 전략($\beta = -.22$), 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beta = -.19$)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

〈표 4〉 아동과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이혼 가족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의 평균, 표준편차와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 변인		남 아			여 아			전체 ($N = 126$)	아동성 (A)	F값 부모성 (B)	상호작용 A X B
		부 ($n = 16$)	모 ($n = 41$)	전체 ($n = 57$)	부 ($n = 22$)	모 ($n = 47$)	전체 ($n = 69$)				
자아 지각	능력	2.7 (0.5)	2.6 (0.7)	2.6 (0.6)	2.5 (0.4)	2.5 (0.6)	2.5 (0.6)	2.6 (0.6)	1.37	.10	.11
	자아 적절성	2.8 (0.4)	2.7 (0.5)	2.7 (0.5)	2.8 (0.4)	2.8 (0.5)	2.8 (0.5)	2.7 (0.5)	.41	.48	.18
문제 행동	총점	51.1 (11.5)	47.5 (10.4)	48.5 (10.8)	46.5 (11.0)	50.3 (11.8)	49.1 (11.6)	48.8 (11.2)	.15	.00	2.79
	내재화	52.6 (14.0)	50.9 (11.4)	51.4 (12.1)	46.6 (9.6)	51.7 (11.4)	50.1 (11.1)	50.7 (11.5)	1.29	.58	2.24
	외현화	48.3 (7.1)	46.2 (9.5)	46.8 (8.9)	48.6 (11.1)	50.0 (11.3)	49.5 (11.2)	48.3 (10.3)	1.04	.03	.72

〈표 5〉 아동의 자아지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26)

독립 변인	능력 β	자아적절성 β
긍정적 대처 전략	.32***	.17*
부정적 대처 전략	-.22**	-.23***
권위 있는 양육 유형	.01	.03
허용적 양육 유형	-.01	.01
독재적 양육 유형	-.07	-.03
자녀 양육 스트레스	-.19*	-.07
경제적 문제	-.03	-.01
일과 가족 갈등	.18	.04
친구지지	.12	.23***
가족지지	-.02	.15
교사지지	.08	.24***
R ²	.27	.44
F	3.75***	8.06***

*p < .05. **p < .01. ***p < .001.

하고, 부정적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아지각 중 '자아적절성'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자아 적절성 변량의 44%를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의 친구 지지(β = .23), 교사 지지(β = .2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부정적 대처 전략(β = -.23), 긍정적 대처 전략(β = .17)이 자아적절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친구, 교사로 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자아적절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아동의 '문제 행동 총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문제 행동 총점 변량의 18%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투입된 변인 중 자녀 양육 스트레스(β = .28), 친구 지지(β = -.17)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아동이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 하였음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 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 변량의 14%를 설명하였으며, 독립 변인들 중 자녀 양육 스트레스(β = .27)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내재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부모가 보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 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때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 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β = .31)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현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 가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양육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동의 자아지각과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이 사용하

〈표 6〉 문제 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26)

독립 변인	문제 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
	β	β	β
긍정적 대처 전략	-.11	-.10	-.07
부정적 대처 전략	.01	.02	.05
권위 있는 양육 유형	-.15	-.12	-.11
허용적 양육 유형	-.07	-.06	-.03
독재적 양육 유형	.06	.05	.04
자녀 양육 스트레스	.28**	.27**	.31***
경제적 문제	-.07	-.04	.01
일과 가족 갈등	-.02	-.00	-.02
친구지지	-.17*	-.07	-.14
가족지지	.12	.13	.11
교사지지	-.04	-.07	.08
R ²	.18	.14	.15
F	2.25*	2.01*	2.13*

*p < .05. **p < .01. ***p < .001.

는 대처 전략,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부모의 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아서 이혼 가족 아동의 보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지각은 남아와 여아, 그리고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지각에서 성차가 없었다는 오원정(1999), Printrich와 De Groot(1990)의 연구와 일치하고, 동성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이성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보다 자존감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들과는 상치하는 결과이다(Camara & Resnick, 1987; Santrock & Warshak, 1979). Chang과 Deinard(1982)는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는 이혼 가정 어머니보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고, 이것이 아동의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아버지들은 7명(18.4%)이 무직 상태에 있고 주로 저소득층에 속하여 Chang과 Deinard(1982)의 연구 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것이라 여겨진다. Hetherington과 Kelly(2002)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혼 전에 아버지가 심리적인 부재 상태였고,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이혼 후 잘 적응하고 유능한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혼 가족 아동의 삶은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혼 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가 보다는 양육 부모의 이혼 후 적응 정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이혼 전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문제 행동은 남아와 여아, 그리고 이혼 후 어느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이혼 후 적응에 더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Block *et al.*, 1986; Morrison & Cherlin, 1995), 이는 양육권이 주로 어머니에게 주어지므로, 이혼 후 동성 부모가 양육을 할 때 더 잘 적응한다는 동성 부모 가설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성 부모 양육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즉 아동이 동성의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실제로는 조부모가 양육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 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둘째, 이혼 가족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그리고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이 친구와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아적절성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처 전략은 아동의 능력, 자아적절성에 대한 자아지각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대처 전략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적응의 문제를 덜 보였고(Armistead, *et al.*, 1990),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결과(Cowen *et al.*, 1990)와 일치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아동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 요인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 요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발생 시 아동이 공격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거나 회피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거나 다른 대체 활동을 즐기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나 교사의 관심을 끌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회피적 대처 방식을 주로 하는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순종적이며 순한 아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고 아동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아동의 경우 주변의 교사나 부모들이 적응을 잘 하는 아동으로 인식하여 방관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어야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감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부모 스트레스의 하위차원 중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평가가 비교의 근거가 되어 자아 지각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학업 수행에서의 성적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하나의 준거로 작용하여 아동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 가족 부모가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등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걱정하기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역할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 교사 지지는 자아적절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구관계의 정도를 깊게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김승경, 2004; Hirsch & Reischl, 1985)와 일치한다. 오원정(1999)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기능은 사회적 수용, 행동, 전반적 자아 가치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친구 관계에서 갈등과 경쟁이 많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아동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으면 아동의 자아지각이 더 긍정적이며, 자아지각이 낮은 아동은 교사의 기대도 낮게 평가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hillips, 1984). 즉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아동의 자아적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혼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해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행동 유형이 아동의 능력과 자아적절성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아동이 자신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와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 양육 행동 유형별로 자아지각의 '능력' 점수의 문항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권위 있는 양육 행동 유형의 문항 평균($M = 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허용적 양육 행동 유형의 문항 평균($M = 2.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양육 행동 유형별로 자아지각의 '자아적절성' 점수의 문항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권위 있는 양육 행동 유형 집단($M = 2.9$)이 방임적 양육 행동 유형 집단($M = 2.6$)보다 자아적절성 문항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방임적 양육 유형은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을 보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비요구적인 태도인데, 본 연구 대상 중 47명(37.3%)의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 양육 유형을 방임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부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여서 방임적 양육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수입이 적으므로 주거 환경은 열악하며 부모는 최저 수준의 생계로 인해 항상 긴장하고 염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정하고 지지적으로 대할 여력이 부족하여 무관심한 양육을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부모의 적절한 온정과 통제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여,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직업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이혼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지속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아동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낄수록 이혼 가족 아동이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부모가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부모 스트레스의 하위차원 중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 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한경혜(1993)는 부모가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등에 관한 자녀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오은순(1997)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부모의 적응과 사회적 지지, 학교와 가정 관계가 영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 후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2년 후, 5년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혼 가족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Kelly, 2000). 즉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도 필요하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적응 상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는 문제 행동 총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Kurdek과 Sinclair(1988)의 연구에서 문제 행동이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친구 지지가 의미 있는 예언력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과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켜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발달 특성상 학령기에는 가족의 영향력이 이전 상태로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반면, 친구가 아동의 삶에 매우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친구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되므로, 친구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 유형은 아동의 문제 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 ~ 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권위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혼이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Wolchik *et al.* (2000)의 연구 결과와 상치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한다(홍순혜, 2004). 선행 연구에서 부모 양육 행동의 이혼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 양육 행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권위 있는 양육 유형은 문제 행동 총점과의 상관($r = -.22, p < .05$), 내재화 문제 행동과의 상관($r = -.18, p < .05$), 외현화 문제 행동과의 상관($r = -.19, p < .05$) 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 있는 양육 유형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을 하기 보다는, 권위 있는 양육 행동 유형과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 공통 변량으로 인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 문제 행동 점수의 경우 아동의 평균 점수는 48.8, 내재화 문제 행동의 경우 아동의 평균 점수는 50.7, 외현화 문제 행동의 경우 아동의 평균 점수는 4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별을 목적으로 엄격하게 60T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준점인 60T보다 현저하게 낮고, 평균 점수인 50T 내외의 점수이므로 대상 아동들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2,272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10.4%인 7,08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꾸준히 이용해 아동들이 행복감, 자아감, 부모와의 관계, 의·식·주, 친구관계에 대한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심리, 정서상의 우울, 불안과 비행 행동 등도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지역아동센터는 이혼 가족 아동의 경우 방과 후 낮 시간에 부모의 보호 및 감독의 결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 가족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빈곤 아동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및 교사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이혼 가족 아동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표집되었는데, 이러한 대상 선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리고 부모 행동 유형의 특성으로 문제 행동이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본 연구 대상 중 47명(37.3%)의 아동이 부모 양육 행동 유형을 방임적이라고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방임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용 질문지는 58.3%의 회수율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결과에서 참여자 선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를 통해서 부모용 질

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수율이 낮아졌으며, 부모용 질문지에 '이혼'에 관한 직접적 문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문지에 응답한 부모는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라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자기 제시 등기를 가지고 질문지에 응답하여(이은혜, 이미리, 박소연, 2006), 아동의 문제 행동을 실제로 적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로 자녀가 문제 행동이 적다고 지각하는 부모가 질문지에 더 많이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인 이혼 가족 아동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하며 많은 아동이 부모가 자신을 방임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아동은 비행이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본 연구 대상과 같이 저소득층의 이혼 가족 부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 수준의 생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고 생활에 지쳐서 아동에게 무관심한 양육을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즉 근본적으로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 중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18.4%, 어머니의 15.9%가 실업 상태이었는데, 이러한 빈곤 실직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업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직 기간 중 가정의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인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식되어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기능 및 양육 기능 등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출을 하거나 아동 유기로 이어져 소년 소년 가장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실업 상태인 부모의 취업 상담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저소득층 이혼 가정에 대한 복지 자금의 증액 및 보호 대상의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고용 지원,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이혼 가족 부모에게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순히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아동의 학교 공부나 숙제 도와 주기, 기타 취미 활동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되어 한다. 특히 아동이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한 부모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혼 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가족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법적인 내용, 경제 관리, 자녀 양육 방법 및 자녀 양육 문제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이혼 가족 부모가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말에 민법 개정으로 합의 이혼을 하려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08년 6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이혼숙려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부부는 자녀의 친권자가 누구이고 양육은 누가 할 지, 양육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 액수 및 방법, 면접 교섭권 행사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어긋날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줘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 80%에서 2~4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04년 10%에 불과했던 협의 이혼 신청 취하율이 지난해에는 21.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2007). 이는 법 제도로 인한 이혼 억제 효과의 효과를 보여주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심사숙고하여 이혼을 결정하라는 법적 권고는 필요하다 여겨진다. 그러나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자녀가 있는 부모는 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거나, 이혼 후 부모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이혼 결정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관리 감독의 제도가 필요하며,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때 사회적·법적 강제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대상을 서울시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에 다니며 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4~6학년 이혼 가족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편의 표집하고 눈덩이 표집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과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보고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Compas, Howell, & Phares, 1989)를 고려한다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 교사, 또래 등 다른 응답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외에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부모의 심리적 적응, 부모 자녀 관계의 질 등을 변인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적응을 살펴본 점, 그리고 이혼 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혼 가족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이혼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저소득층 이혼 가족의 이해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추후 저소득층 이혼 가족 아동이나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경(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 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희(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법원행정처(2007).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보건복지부(2007).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 보건복지부.
- 신재선, 정문자(2002). 초등학교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123-138.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원정(1999). 친구 관계의 질 및 친구 관계망과 아동의 자아 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순(1997).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생활과학논집*, 6, 175-191.
-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현숙, 서동인(1997). 편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주소희(2004).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7). **인구통계연보**.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8). **2007년 이혼 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 부부의 적응과 관련 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준아(2008). 이혼 가정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0.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len, K. R.(1993). The dispassionate discourse of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46-53.
-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3-38.
- Amato, P. R.(1999).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as young adults.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pp. 147-163). Mar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mato, P. R.(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69-1287.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26-146.
- Armistead, L., McCombs, A., Forehand, R., Wierson, Long, M., & Fauber, R.(1990). Coping with divorce: A study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79-84.
- Barber, B. L., & Demo, D. H.(2006). The kids are alright(at least, most of them): Links between divorce and dissolution and child well-being. In M. A. Fine & J. H. Harvey (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cussion*(pp. 289-311). Mar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F.(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Camara, K. A., & Resnick, G.(1987). Interpar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Factors moderating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In E. M. Hetherington & J. D. Arasteh (Eds.), *Divorced,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pp. 169-196). Hillsdale, NJ: Erlbaum.
- Chang, P., & Deinard, A. S.(1982). Single-father caretak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236-243.
- Cherlin, A. J., & Chase-Lansdale, P. L.(1998).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mental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239-249.

- Compas, B. E., Howell, D. C., & Phares, V.(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 problems in young adolescence: A per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6), 732-740.
- Cowen, E. L., Wyman, P. A., Work, W. C., & Parker, G. R.(1990). 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93-212.
- Dubow, E., & Ullman, D.(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mery, R. E.(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 Harter, S.(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Hetherington, E. M.(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1999). Social capital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from nondivorced, divorced, and remarried families. In W. A. Collins & B. Laursen (Ed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30, pp. 177-209). Mar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therington, E. M., & Kelly, J.(2002). *For better or for worse: Divorce reconsidered*. NY: Norton.
- Hirsch, B. J., & Reischl, T. M.(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3), 272-281.
- Kelly, J. B.(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3.
- Kurdek, L. A., & Sinclair, R. J.(1988). Adjustment of young adolescents in two-parent nuclear, stepfather, and mother-custody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1-96.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on, K.(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A review of the research. *Family Relations, 5*(3), 258-270.
- McCubbin, H. L.(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FILE). Unpublished manuscript.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orrison, D. R., & Cherlin, A. J.(1995). The divorce process and young children's well-being: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800-812.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hillips, D. A.(1984). The illusion of incompetence among academical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2000-2016.
- Printrich, P. R., & De Groot, E. V.(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Sandler, L. N., Kim-Bae, L. S., & Mackinnon, D. P.(2000). Coping and negative appraisal as mediators between control belief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336-347.
- Sandler, L. N., Tein, J., & West, S. G.(1994). Coping,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children of divorce: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744-1763.
- Santrok, J. W., & Warshak, R. A.(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Simons, R. L., Kuei-Hsiu, S. C., Conger, R. D., & Lorenz, F. O.(1999). Explaining the higher incidence of adjustment problems among

children of divorce compared with those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1020-1033.

Walsh, P. E., & Stolberg, A. L.(1988). Parent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behavioral, affective and cognitive adjustment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12, 265-282.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 Sandler, L. N.(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8(1), 87-102.

접 수 일 : 2008년 5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8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5일